

##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 조사

김보람\*, 김호영, 손유라, 오진주\*\*, 윤슬기\*\*\*, 이효정\*\*\*\*, 장문영\*\*\*\*\*

\*편애플레이(fun & play) 운동발달센터

\*\*울산강남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작업치료실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꿈의 동산

\*\*\*\*인창병원 작업치료실

\*\*\*\*\*인제대학교 의생명공학대학 작업치료학과

### 국문초록

목적 :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방법 : 연구 대상은 김해시에 소재한 통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초등학교의 4, 5, 6학년의 비장애 아동이었다.

연구 기간은 2008년 10월 2일부터 10월 17일까지였으며,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하위 영역은 사귀, 활동, 학업 영역의 세 부분으로 각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SPSS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첫째, 성별에 따른 인식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평균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둘째, 학년에 따른 인식은 4학년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고 6학년이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3.546, p<0.05$ ). 셋째, 장애인 접촉 유무에 따른 인식은 접촉 경험이 없는 학생이 있는 학생보다 평균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결론 : 비장애학생의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들에게 장애아동에 대한 또래집단의 인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교환경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장애아동, 장애인식, 초등학생

### I. 서 론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 친구를 사귀고 우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Case-Smith, 2005). 친구관계를 통하여 학생들은 중요한 대인관계 기술들을 습득한다(Buhrmester & Furman, 1996). 아동은 친구관계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자아지지의 가치와 문제해결 방법을 배우며, 친구와 자신의 갈등이나 욕구불만을 공유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다(이옥형, 2002). 또한 Rubin, Bukowski와 Parker(정옥분, 2004 재인용)는

아동이 친구관계를 통해 점차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규범을 배우게 된다고 하였다.

학교는 가정을 제외하고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다. 학교를 통해 아동은 새로운 지식을 제공받고, 또래와의 관계를 통하여 가치관, 동기, 태도 등의 행동 발달에 큰 영향을 받는다.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학교는 가정과 함께 아동 생활의 중심으로써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초등학교는 아동이 가정을 떠나 처음으로 형식적인 교육을 경험하게 되는 곳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정미영과 문혁준(2007)은 아동이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 능력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격적 발달을 이루게 되며, 아동기의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은 이후 중, 고, 대학교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친구지지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정미영과 문혁준, 2007). 이것은 아동이 친구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긍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한다고 보고한 박은주(2004)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정상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또래친구가 큰 영향을 미치듯이 장애아동에게도 친구지지는 영향력 있는 변인이다. 장애아동들은 비장애 또래와의 친구관계를 통해 앞서 언급한 친구관계의 이점들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실제적 도움을 얻을 수 있다(Traustadottir, 1993). Mandich, Platajko와 Rodger(2003)는 운동 손상이 있는 아동이 여전히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또래 친구들과 함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아동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법제처, 2008)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다양한 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일반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이다(이한우와 강인연, 2006). 장애아동이 일반학생들과 함께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또래의 긍정적인 인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일상생활의 참여에 제한이 있는 아동은 또래 친구들과로부터 사회적 고립, 희생, 거절을 경험할 우려가 있다.

장애아동 인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오원석, 최성규와 이한선(2007)은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긍정적이며, 간접 경험과 접촉빈도가 높은 학생들이 보다 긍정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박옥임, 김현숙, 문희와 김진희(2008)는 일반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생들을 비교했을 때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학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Voeltz(1980)는 장애아동에 대한 비장애학생의 태도 연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이 장애아동에 대해 더욱 수용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고 보고하였다. Maras와 Brown(2006)의 비장애학생들의 장애아동 접촉 유무에 따른 효과를 연구한 결과, 장애아동을 접촉한 비장애학생들의 사회적 순응이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다양한 결과는 대부분 통합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일반교육을 받고 있는 비장애학생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한다. 특히 비장애학생의 성별과 학년, 장애인 접촉 유무와 같은 변인에 따라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함으로써 또래집단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K시에 소재한 통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초등학교의 비장애학생 26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가 146명(55.1%), 여자가 119명(44.9%)이었다. 학년에 따른 구분은 4학년이 80명(30.2%), 5학년이 89명(33.6%), 6학년이 96명(36.2%)이었다. 장애인 접촉 유무에 따른 구분은 장애인 접촉 경험이 있는 학생이 223명(84.2%), 장애인 접촉 경험이 없는 학생이 42명(15.8%)이었다. 장애인 접촉 방법은 장애 인척, 장애를 가진 친구 또는 이웃, 각종 활동을 통해 장애인을 만나본 경험으로 구분하였다.(표 2).

###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지는 박순길, 임정숙, 서경웅(2006b)이 사용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위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0.97이었다. 설문지 구성은 전체 30문항으로 사립 10문항(1~10), 활동 10문항(11~20), 학업 10문항(21~30)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정말 그렇다' 5점에서 '전혀 아니다' 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인원수(명)	백분율(%)
성별	남자	146	55.1
	여자	119	44.9
학년	4학년	80	30.2
	5학년	89	33.6
	6학년	96	36.2
장애인 접촉 유무	유	223	84.2
	무	42	15.8
전체		265	100.0

표 2. 장애인 접촉 관련 정보

장애인 접촉 방법		인원수(명)	백분율(%)
장애인 인척	유	22	8.3
	무	243	91.7
장애인 친구, 이웃	유	91	34.3
	무	174	65.7
장애인 관련 활동 경험	유	85	32.1
	무	180	67.9
기타		76	28.7
장애인을 만나본 적 없음		42	15.8

### 3. 연구 절차

김해시에 소재한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두 곳의 초등학교에 2008년 10월 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총 318부를 배부하였으며 292부를 수거하였으며, 수거율은 91.8%였다. 수거한 설문지 중에서 기록이 불확실한 27부를 제외한 265부를 분석하였다.

### 4. 연구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고, 성별변인, 학년변인 장애인 접촉변인과 아동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 F 검증(ANOVA)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성별에 따른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 비교

성별에 따른 비장애학생의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하위영역인 사귀, 활동, 학업 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 t 검증 값을 아래에 제시하였다(표 3).

전체적으로 성별( $t=-1.75$ )에 따른 비장애학생의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에서 남학생은 평균  $3.01 \pm 0.91$ , 여학생은 평균  $3.21 \pm 0.97$ 점으로 여학생이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각 하위영역별로 보면 사귀 영역에서 남학생은 평균  $2.99 \pm 0.87$ , 여학생은 평균  $3.14 \pm 0.98$ 점으로 여학생이 더 높았다. 활동 영역에서 남학생은 평균  $2.86 \pm 0.97$ , 여학생은 평균  $3.11 \pm 1.02$ 점으로 여학생이 더 높았다. 학업 영역에서도 남학생은 평균  $3.17 \pm 1.02$ , 여학생은 평균  $3.38 \pm 1.04$ 점으로 여학생이 더 높았다.

표 3. 성별에 따른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사꺻	남	2.99	0.87	1.27
	여	3.14	0.98	
활동	남	2.86	0.97	1.99
	여	3.11	1.02	
학업	남	3.17	1.02	1.71
	여	3.38	1.04	
전체	남	3.01	0.91	1.75
	여	3.21	0.97	

표 4. 학년에 따른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사꺻	4학년	3.23	0.93	2.50
	5학년	3.04	0.96	
	6학년	2.92	0.86	
활동	4학년	3.15a	0.98	3.06*
	5학년	3.02a,b	1.04	
	6학년	2.79b	0.96	
학업	4학년	3.48a	0.98	4.19*
	5학년	3.31a,b	1.05	
	6학년	3.04b	1.03	
전체	4학년	3.29	0.92	3.55*
	5학년	3.12	0.97	
	6학년	2.92	0.91	

사후검정 Duncan test / 알파벳이 다른 군 간에 차이가 있음

\*p<0.05

다. 각 하위영역에 따른 성별 차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 2. 학년에 따른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 비교

학년에 따른 비장애학생의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하위영역인 사꺻, 활동, 학업 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 F 검증(ANOVA) 값을 아래에 제시하였다(표 4).

전체적으로 학년에 따른 비장애학생의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에서 4학년은 평균 3.29±0.92, 5학년은 평균

3.12±0.97, 6학년은 평균 2.92±0.91으로 4학년이 가장 높고 6학년이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3.546, p<0.05). 각 하위영역별로 보면 활동 영역에서는 4학년이 평균 3.15±0.98, 5학년이 평균 3.02±1.04, 6학년이 평균 2.79±0.96으로 4학년이 가장 높고 6학년이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3.06, p<0.05). 학업 영역에서도 4학년이 평균 3.48±0.98, 5학년이 평균 3.31±1.05, 6학년이 평균 3.04±1.03으로 4학년이 가장 높고 6학년이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4.19, p<0.05). 사꺻 영역에서 4학년은 평균 3.23±0.93, 5학년

표 5. 장애인 접촉유무에 따른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사립	유	3.17	0.92	0.87
	무	3.03	0.92	
활동	유	2.95	1.01	1.06
	무	3.12	0.97	
학업	유	3.38	1.05	0.87
	무	3.24	0.94	
전체	유	3.07	0.87	1.01
	무	3.22	0.95	

은  $3.04 \pm 0.96$ , 6학년은  $2.92 \pm 0.86$ 으로 4학년이 가장 높고 6학년이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 3. 장애인 접촉유무에 따른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 비교

장애인 접촉유무에 따른 비장애학생의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하위영역인 사립, 활동, 학업 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 t 검증 값을 아래에 제시하였다(표 5).

전체적으로 장애인 접촉유무에 따른 비장애학생의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에서 장애인 접촉 경험이 있는 학생은 평균  $3.07 \pm 0.87$ , 장애인 접촉 경험이 없는 학생은 평균  $3.22 \pm 0.95$ 로 장애인 접촉 경험이 없는 학생의 평균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각 하위영역별로 보면 사립 영역에서 장애인 접촉 경험이 있는 학생은 평균  $3.17 \pm 0.92$ , 장애인 접촉 경험이 없는 학생은 평균  $3.03 \pm 0.92$ 이고, 학업 영역에서 장애인 접촉 경험이 있는 학생은 평균  $3.38 \pm 1.05$ , 장애인 접촉 경험이 없는 학생은 평균  $3.24 \pm 0.94$  이었다. 사립 영역과 학업영역 모두 장애인 접촉 경험이 있는 학생의 평균이 더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활동 영역에서는 장애인 접촉 경험이 있는 학생은 평균  $2.95 \pm 1.01$ , 장애인 접촉 경험이 없는 학생은  $3.12 \pm 0.97$ 로 장애인 접촉 경험이 없는 학생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 IV. 고찰

장애아동에게 있어 그들의 사회 속에서 개인의 특성, 기대에 따른 행동을 조직화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참여는 중요하다.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가장 큰 벽이 되었던 것은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부족, 부정적 선입견이었다(최영하와 엄혜선, 2005). 따라서 장애아동이 사회에 완전한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함께 지내는 또래의 인식이 중요하다.

현재 장애학생들이 일반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이다(이한우와 강인연, 2006). 장애아동이 일반학생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며 학교생활을 잘 영위하기 위해서는 또래의 긍정적인 인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 시점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의 장애아동 수용에 대한 준비를 돕기 위해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교사와 학생들에게 성공적인 장애아동의 참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통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를 선정하였다.

또래 집단의 부정확한 판단에 대한 동조 경향에 대한 연구(Costanzo & Shaw, 1996)에서 11세에서 13세 사이의 아동의 평균 동조 점수가 가장 높았다. 동조성이란 다른 사람의 가치와 태도를 채택하는 경향을 말한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동조 경향으로 인해 집단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비장애학생들은 자신과 다른 특징을 가진 장애아동을 배타하고 놀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쉽게 표출할 수 있다. 또한 정원식과 강주태(1981)의 사회성 발달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교 5, 6학년 시기에 친구들과의 정서적 교류가 활발해 지고 성인의 간섭을 싫어하며 반사회적 경향이 생기는 시기로 보였다. 또래동조에 대한 고전적 연구에서 Thomas Berndt(1979)는 10~19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래들이 다양한 친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을 옹호할 때 그들이 또래압력에 굴복할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친사회적 행동을 권하는 또래에 대한 동조는 연령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지만 반사회적 행동을 권하는 또래에 대한 동조는 연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조성에 영향을 받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성별에 따른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차이를 살펴보면 평균값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지만 통계학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우관계 영역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김윤현(2002)의 연구결과와 비슷하다. 박옥임, 김현숙, 문희와 김진희(2008)의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른 장애 학생에 대한 수용태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최성규와 박효순(2004)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통합학급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객관적 인식은 남녀별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오원석 등(2007)의 연구 결과에서는 장애아동의 능력에 대한 인식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긍정적이었다. 박재국, 손상희(2004)의 연구에서 초·중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태도를 비교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긍정적인 반면 행동적 태도는 여학생이 더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았을 때 성별에 따른 비장애학생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연구방법이나 목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학년에 따른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차이를 살펴보면 학년이 높을수록 인식이 부정적이었으며, 통계학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세민과 김희규(2002)의 장애아동에 대한 초등학교 일반아동의 수용태도 연구에서도 학년이 낮을수록 수용적인 태도를 나타낸 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현(2002)의 연구에서 학년이 낮을수록 장애 학생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 또한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다. 광지영, 진기남과 이익섭(1996)의 장애아동에 대한 또래집단의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도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 결과의 원인은 학교에서의 교육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형성에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김윤현(2002)은 가치관의 형성이 거의 이루어지는 단계인 고학년보다는 형성단계에 있는 저학년일수록 장애에 대하여 부정적인 사고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우관계 인식에 있어서 고학년보다 저학년이 장애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비장애학생의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에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질적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된 논문에서 언급한 요인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적은 학생에 비해 나이가 많은 학생일수록 더 많은 사회경험을 하기에 학년에 따른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본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년에 따른 인식차이를 분석해 보면 각 학년 중 4학년과 6학년 사이에 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학년의 차이가 더 클수록 비장애학생들의 장애인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경험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장애인 접촉 유무에 따른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차이를 살펴보면 장애인 접촉 경험이 없는 학생이 더 긍정적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장애 접촉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오원석 등(2007)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박재국, 강영심, 안성우, 김자경, 황순영(2006)은 장애 학생에 대한 비장애학생의 태도형성에 장애아동과의 직접적인 교류 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윤현(2002)의 연구에서도 일반학생들이 장애 학생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많을수록 장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광지영 등(1996)의 연구에서는 장애아동과의 접촉정도가 낮을수록 오히려 장애아동에 대해 긍정적임을 보고했다. 본 연구의 결과 장애인 접촉유무에 따른 인식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비장애학생 각 개인의 환경에서 장애아동과의 접촉 경험 유무보다는 어떤 장애아동을 만나왔으며, 접촉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등과 같은 개인마다의 경험의 질이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지역은 김해시로 대상자를 임의 표출하는데 제한이 있어 본 연구 결과를 전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설문지 발송 과정에서 A 초등학교는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회수하고, B 초등학교는 방문을 통하여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법상의 차이가 있었다. A 초등학교 학생들이 설문지를 작성할 당시 작성방법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고, B 초등학교에서도 연구자들이 학생들에게 직접 작성방법을 전달하지는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통합교육의 경험이 없는 학생의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이전에 다른 교육기관에서 통합교육을 받은 학생에 대한 통계를 하지 못한 것이 제한점으로 남는다.

지금까지 작업치료 영역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했던 점에서 본 연구는 큰 의미가 있다. 연구결과는 앞으로 학교 분야로 진출하게 될 작업치료사들이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장애아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접촉과 관련하여 단지 접촉 경험의 유무만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장애인 접촉과 관련하여 장애원인,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등 세부요소들을 변인으로 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볼 것을 제안한다. 또한 다양한 지역과 연령을 대상으로 하여 비장애학생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K시에 있는 두 개의 일반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4학년 80명, 5학년 89명, 6학년 96명으로 전체 265명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 F검증(ANOVA)을 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하위영역인 사귀영역, 활동영역, 학업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긍정적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학년에 따른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은 4학년이 6학년보다 더 긍정적이었다. 하위영역인 활동 영역과 학업

영역에서 6학년보다 4학년이 더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사귀 영역에서는 4학년이 가장 긍정적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장애인 접촉 유무에 따른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하위영역인 사귀 영역, 활동 영역, 학업 영역에서 접촉 경험이 없는 학생이 접촉 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더 긍정적이었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 비장애학생의 학년에 따른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은 4학년이 6학년보다 더 긍정적이었다. 이는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저학년 시기에 받은 장애인 관련 인식 교육과 장애에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경험들이 장애에 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본다. 성별이나 장애인 접촉 유무에 따른 인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선행된 연구들을 보면 이런 변인들이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과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며 연구 목적과 방법에 따라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비장애학생들에게 장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아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 효율적이고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향후 작업치료사가 이 연구를 토대로 장애아동의 성공적인 학교생활 참여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곽지영, 진기남, 이익섭. (1996). 장애아동에 대한 또래 집단의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28(0), 39-55.
- 김운현. (2002). *부분통합교육 경험이 있는 일반학생들의 장애 인식 수준*. 대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순길, 임정숙, 서경웅. (2006). 통합교육 환경에서 지체부자유, 정신지체, 학습장애, 청각장애 아동에 대한 또래아동의 장애인식태도 연구. *한국지체부자유아교육학회지*, 47, 221-244.
- 박옥임, 김현숙, 문희, 김진희. (2008).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일반학생과 학부모의 장애학생 수용태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9(1), 125-134.
- 박은주. (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부*

- 모, 친구, 교사관계를 중심으로. 춘천: 춘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재국, 강영심, 안성우, 김자경, 황순영. (2006). 초·중등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 비교 연구. *한국특수아동학회*, 8(2), 1-25.
- 박재국, 손상희. (2004) 지체부자유아에 대한 초,중등학생의 태도. *한국지체부자유아교육학회지*, 44, 155-182.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2008). <http://www.klaw.go.kr>
- 오원석, 최성규, 이한선. (2007). 통합교육에 대한 비장애학생의 태도 관련 변인 간 관계 연구. *한국특수아동학회*, 9, 41-64.
- 이옥형. (2002). 아동·청년 발달. 서울: 집문당.
- 이한우, 강인언. (2006).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7(3), 137-169.
- 정미영, 문혁준. (2007).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8, 37-54.
- 정옥분. (2004). 발달심리학 전생애 인간발달. 서울: 학지사.
- 정원식, 강주태 (1981). 교육 심리학. 서울: 재동 문화사.
- 최성규, 박효순. (2004). 설문방법에 따른 초등학교 통합학급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차이 연구. *한국특수교육학회*, 38(4), 413-431.
- 최세민, 김희규. (2002). 장애아동에 대한 초등학교 아동의 수용태도.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2(1), 121-134.
- 최영하, 엄혜선. (2005).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TV시청 지도가 일반아동의 장애아 수용태도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4(1), 155-178.
- Buhrmester, D., & Furman, W. (1986). The changing functions of friends in childhood: A neo-Sullivan perspective. In V. J. Derlega & B. A. Winstead (Eds.), *Friendship and social interaction*(pp.41-62). New York: Springer-Verlag.
- Case-Smith, J. (2005). *Occupational therapy for children*. (5th ed.). St. Louis: Elsevier Mosby.
- Costanzo, P. R., & Shaw, M. E. (1966). Conformity as a function of age level. *Child development*, 37, 967-975.
- Mandich, A. D., Polatajko, H. J., & Rodger, S. (2003). Rites of passage: Understanding participation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coordination disorder. *Human Movement Science*, 22, 538-595.
- Maras, P., Brown R. (2006). Effects of contact on children's attitudes toward disability: A longitudinal study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1, 2113-2134.
- Shaffer, D. R. (2002). *Childhood &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Singapore: Thomson Learning.
- Traustadottir, R. (1993). The gendered context of friendships. In A. N. Amado (Ed), *Friendships and community connections between people with and without developmental disabilities* (pp. 109-127). Baltimore: Paul G. Brookes.
- Voeltz L. M. (1980). Children's attitudes toward handicapped peers. *American Journal Mental Deficiency*, 84, 455-464.



## Abstract

### A Survey on the Attitude of Grade-schoolers Without Disabilities Toward Children With Disabilities

Kim, Bo-Ram<sup>\*</sup>, B.O.T., O.T., Kim Ho-Young, B.O.T., Son, You-Ra, B.O.T., O.T.,  
Oh, Jin-Ju<sup>\*\*</sup>, B.O.T., O.T., Yoon, Seul-Ki<sup>\*\*\*</sup>, B.O.T., O.T.,  
Lee, Hyo-Jeong<sup>\*\*\*\*</sup>, M.O.T., O.T.,  
Chang, Moon-Young<sup>\*\*\*\*\*</sup>, Ph.D., O.T.

<sup>\*</sup>Fun&Play Motor Development Center

<sup>\*\*</sup>Dept. of Occupational Therapy, Supporting Center for Special Education,  
Ulsan Metropolitan Gangnam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sup>\*\*\*</sup>Dreamland

<sup>\*\*\*\*</sup>Dept. of Occupational Therapy, Inchang Hospital

<sup>\*\*\*\*\*</sup>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Biomedical Science and Engineering, Inje University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ttitude of grade-schoolers toward children with disabilities.

**Methods** :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grade-schoolers who have not received an inclusive education in Gim-hae. The study was surveyed from October second to 17th in 2008. The survey was categorized into three parts: comradeship, activity, and study. Each part of the survey consists of 10 questions. Data were analyzed by SPSS (version 12.0).

**Results** :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attitude of girls toward disabled students was non-significant compared to boys. Second, the order of attitude degree in grade of students was 4, 6, and 5. The attitude toward children with disabilitie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grade ( $F=3.546$ ,  $p<0.05$ ). Third, the attitude of students who have experience of contact with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non-significant compared to non-experienced students.

**Conclusion** : In conclusion, therefore peer groups in lower class levels showed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result will be useful information for understanding disabled children and making positive attitude. Also it is expected that occupational therapists help disabled children to participate in school life successfully using these information.

**Key Words** : children with disability, disability attitude, grade-schoolers